

반갑다, 야구야



무등경기장에 그라운드 붐을 알리는 불이 밝혀졌다. 2013시즌 개막을 이틀 앞둔 28일 KIA 선수들이 조명탑을 켜고 야간 경기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일 프로야구 개막...KIA 타이거즈, 넥센 상대 'V11' 시동

'호랑이 군단'의 11번째 우승 드라마가 시작된다. 2013 프로야구가 30일 오후 2시 무등경기장을 비롯한 전국 4개구장에서 개막전을 갖고 대안원의 막을 올린다. 막강 타선을 앞세워 시범경기 1위 질주를 한 KIA 타이거즈는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시즌 첫 승 사냥에 나선다. <관련기사 3·14면> KIA 선동열 감독과 넥센 염경엽 감독의 광주일고 동문 사령탑 대결로 눈길을 끄는 광주 경기는 '개막전 연패 징크스'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KIA는 2005년 한화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3-13으로 대패를 당한 뒤 지난 2012시즌까지 내리 패배를 기록하

며 개막전 8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 개막전 연패 탈출과 V11을 위한 여정의 시작은 외국인 선수 소사의 손에서 시작된다. 빠른 공을 앞세워 지난 시즌 한국무대에 연착륙한 소사는 윤석민이 어깨통증으로 빠진 자리에서 에이스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선발진의 만형 서재응은 31일 마운드를 책임진다. '김주찬 효과'로 불을 뿜고 있는 타선은 호쾌한 타이거즈 야구의 부활을 예고한다. FA 대어 김주찬의 가세로 막강 타선을 구축하게 된 KIA는 시범경기에서 심상치 않은 타격을 선보이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자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문가들로부터 삼성 라이온즈의 3연패를 저지할 팀으로 언급되는 KIA는 팬들이 꼽는 우승후보이기도 하다. 개막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19개 이상 남녀 9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KIA는 삼성(16%)에 이어 10%의 지지를 받으며 우승예상후보 2위에 올랐다. '9구단 체제'는 올 시즌 프로야구의 변수다. 신생팀 NC 다이노스가 가세하면서 출범 32년째를 맞는 프로야구는 흡수팀 체제로 운영된다. 한 팀이 쉬어가는 일정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선수단 운영이 올 시즌 프로야구의 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KIA야구,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효과 연간 1500억원+ 힐링

"야구가 있어 행복합니다." 광주·전남 야구팬들은 1982년 프로야구 출범부터 현재까지 32년동안 야구장에서 목청껏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TV중계를 보며 연고팀인 KIA 타이거즈의 승패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 왔다. 국민스포츠 자리잡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은 지난 2010년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양대 스포츠산업 마케팅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한국 프로야구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 자이언츠가 2313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LG트윈스 1716억원, 두산베어스 1694억원, SK와이번스 1547억원, 기아타이거즈 1507억원, 삼성 라이온즈 973억원, 넥센 히어로즈 841억원, 한화 이글스 81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구단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는 구

단의 지출규모를 비롯해 관중객 소비 규모, 야구마케팅을 벌인 기업의 홍보효과, 야구로 파생된 비즈니스 경제규모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 야구경기를 보기 위해 교통비와 식음료 구매 등 야구팬이 1인당 지출한 금액은 3만6581원으로 2010년 총 관중 637만4600여명을 곱하면 총지출액은 2331억9129만여원에 달했다. 프로야구 관중은 1983년 225만명, 1993년 443만명, 1995년 540만명, 2011년 681만명, 2012년 715만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KIA 타이거즈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KIA 타이거즈의 역할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10차례에 이르는 한국시리즈 우승을 통해 5·18 이후 상실한 지역민들의 울분을 달래고, 미래의 꿈을 이루게 했던 간접적 효과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농림사업 보조금은 '눈먼 돈'

무자격자·중복 지원...전남도, 104건 적발 17억 회수

농업의 기업화와 관로 개혁 등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을 공무원 등 무자격자가 수령하거나 특정인이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는 등 전남지역 농림사업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2면> 전남도는 28일 나주시와 고흥군 등 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104건을 적발, 17억3100만원을 회수하거나 시정하고 95명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수법은 크게 특정인이 중복 지원받거나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지원 대상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식이었다. 출자금(1억원 이상)과 농업인(5명 이상) 등 법인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보성과 장성 모법인 등에 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광양의 한 법인은 출자금이 1500만원에 불과했지만 보조금은 2억1000만원이나 챙겼다. 부부와 형제, 자매, 장모 등 일가족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3곳도 7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까지 지원됐다. 일선 시·군의 지난 5년간 중복·편

중 지원 비율은 평균 17.2%로 해남은 37.8%, 보성 23.7%, 장성 22.1% 등 5개 시·군은 20%가 넘었다. 강진과 순천의 한 법인은 각각 11차례 17억원과, 10차례 11억원을 지원받았다. 경운기와 건조기 구입비용을 지원 하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10개 시·군 704농가가 2차례 이상 중복으로 지원받았다. 심지어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농업책임심의회 위원에게 보조금을 준 사례도 나주시 등 4개 시·군에서 28명에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또 나주와 보성, 영광, 진도 등 4개 시·군에서는 지급 대상자 28명이 보조사업을 심사하는 농업정책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해 모두 11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무안군 등 5개 군은 보조금 대상자 결정도 하기 전에 보조금을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지원도 적발됐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도 비리에 발을 들여놓았다. 시·군 공무원 5명이 농업보조금 900만원을 타서, 6명은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수당 1100만원을 챙겼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 전면 시행

교육부 업무보고...고교 무상교육 2017년 실시

한 학기 시험 없이 운영하는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된다. 이에 앞서 광주 동산중 등 광주·전남지역 5개 중학교에서는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관련기사 7면> 교육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광주 동산중·선운중 등 전국 37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뒤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금지한다. 이 법에는 초·중·고교 내신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오후 5시까지)과 추가 돌봄(오후 10시까지) 서비스는 내년 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체 초등생에게 무상 제공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전면 실시한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소득을 연계해 맞춤형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평생 소모품 무상서비스
062)226-0001
Mercedes-Benz

제1회 광주일보배 전국 여자 아마추어 골프대회

2013년 4월 15일(월) 13:00

- 접수방법
 - 함평다이내스티CC 홈페이지(www.hpdynastycc.co.kr)
- 특 전
 - 가. 신페리오우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면제, 주말회원대우
 - 나. 메달리스트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그린피면제, 주말회원대우
 - 다. 신페리오준우승(1명)
 - 1년간 함평다이내스티 주중 회원대우, 주말회원대우

주 최 | 함평다이내스티CC
주 관 | 6111 광주일보
진 행 | KPGA정회원
후 원 | 전라남도, 함평군, 전남골프협회
문의전화 | 061-320-7700, 320-7777